

30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총평

담당 : 법무사 최재용

1. 출제 경향 및 31회 수험전략

2024년 30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는 대법원 주관 시험의 난이도가 오르고 있었던 최근 경향에 비하면 이번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째, 여전히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기출지문을 인용하는 출제방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서 핵심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새롭게 지문을 구성하는 방식 또는 기출지문들의 내용을 섞어 긴 지문으로 출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여전히 총론의 전반적인 이해의 틀을 가지고 기출지문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즉, 작년 수험전략으로서 각 과목의 총론 및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 등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맞춤으로써 기본 점수를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30회와 같이 지문의 난이도가 낮아질 경우, 그 전략의 효과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 째, 상업등기법을 절차법적인 접근으로 상법과 분리하여 공부하고 출제되던 때와 달리 최근 몇 년간의 출제경향으로 볼 때, 상법의 비중이 보다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등기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상법을 좀 더 비중있게 공부하고 이를 절차법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실무전문가인 법무사시험에서 대표적인 실무과목이므로 이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등기법을 준비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상법 등 실체법의 내용과 함께 유기적으로 정리 · 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상법 지문이 다수 출제됨에 따라 상법과 상업등기법을 함께 준비하여 공부량을 줄이고, 그 이해는 높이는 방식이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 째, 각 회사나 주요 등기사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을 요하는 문제에서 점차 여러 회사나 법인들을 비교하거나 ‘상업등기에 관하여 옳은 것은’ 등으로 쟁점을

뭉어서 출제가 되면서 체감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각 회사나 법인들의 등기를 지엽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오히려 총론적으로 상업등기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28회 시험에서 비송사건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비송사건절차법의 공부 비중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나, 여전히 비송사건절차법의 공부 비중을 늘리기 보다는 상업등기법의 비중을 중시하였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렸었습니다. 역시나 29회에 이어 이번 30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상업등기법과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의 비중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년도와 비교

28회, 29회의 출제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것과 달리 이번 30회의 경우에는 기출지문의 비중이 늘고, 예상 가능했던 중요한 쟁점들이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분들이 느끼는 지문의 난이도는 수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예측해볼 때, 작년과 비교하여 2문제 정도의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제난이도 분석 (전년도와 비교) -

구분	상급	중상급	중급	중하급	하급	소 계
29회	2	5	3	2	3	15
30회	1	3	5	3	3	15

- 출제비중 분석 (전년도와 비교) -

구분		29회	30회
상업등기법	총 론	2	3
	주식회사	6	7
	그 외 (기타 법인, 상호, 종합문제 등)	4	2
	소 계	12	12
비송사건절차법	총 론	1	0
	상사비송	0.5	0
	민사비송	1.5	2
	과태료	0	1
	소 계	3	3